

“반려동물과 건강하게 오래오래”… 동물의약품 연구 ‘활발’

씨티씨바이오, 피부·피모 세정 효과
발포형 천연 옥용제 ‘에코신’ 출시
박셀바이오,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

사람용 치료제, 동물용으로 활용
뇌전증·유선암 치료제 임상진행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동물의약품 시장을 정조준해 피부 질환부터 항암, 인지 기능장애증후군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반려동물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씨티씨바이오는 최근 반려동물 사업부에서 첫 신제품으로 반려동물용 발포형 천연 옥용제 ‘에코신’을 출시하기로 했다. ‘에코신’은 체코 기업 바드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제품인데, 세균성 피부병, 진균성 피부병 및 지루성 염증, 창상 등으로 인한 동물의 피부 및 피모를 세정하는 데 효과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 성분으로 동물 피부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앞서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7월 반려동물 사업부를 신설했다. 지난 30년 동안 동물용 의약품 및 사료 사업을 통해 쌓아



씨티씨바이오 반려동물사업본부가 체코 바드(BAD)사에서 연구개발 및 제조하는 반려동물용 발포형 천연 옥용제 ‘에코신’의 국내 출시를 결정했다. /씨티씨바이오

온 전문성을 기반으로 반려동물 분야로 사업을 본격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씨티씨바이오는 지금까지 국내외 축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왔다. 씨티씨바이오가 자체 발효기술력으로 개발한 ‘씨티씨자임’은 아시아 최초, 전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개발된 사료용 소화효소제다. ‘씨티씨자임’은 지난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국내 사료첨가제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2023

년 글로벌 동물의약품 기업 휴베파마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는 세계 최대 곡물회사 카길과 협력을 추진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씨티씨바이오의 동물약품 사업 규모는 매출 구조 측면에서는 전체 사업의 40%에 달한다. 씨티씨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68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전문 회사 박셀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반려견 전용 면역항암제를 개발해 국내외 동물의약

품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셀바이오는 지난 8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박스루킨-15’ 대량 생산 및 투여 용량·용법 등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하고, 국제특허협력조약(PCT) 출원도 완료했다. 박셀바이오는 이번 PCT 출원을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으로 ‘박스루킨-15’를 수출하기 위한 계획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셀바이오에 따르면 ‘박스루킨-15’는 개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기존 치료법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반려견의 암을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갖췄다.

사람용 치료제를 동물용 의약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임상연구에도 집중하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아누스키나제(JAK) 억제제 계열의 바르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최근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약 후보물질 ‘IN-115314’를 개발하는 임상 1상 시험에서 환자 모집을 마무리했다. 해당 임상은 건강한 성인 남성 자원자와 경증에서 중등증 성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IN-115314 연고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경구용인 동물의약

품 개발의 경우 지난 6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임상 3상 신청을 완료했다.

신약 개발 기업 지엔티파마도 지난 6월 시판 중인 반려견 인지 기능장애증후군 신약 ‘제다큐어’의 반려견 뇌전증에 대한 임상시험계획(IND)을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제다큐어의 주성분인 ‘크리스데살라진’은 동물모델에서 활성산소와 염증을 억제해 해마 뇌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는다는 것이 지엔티파마 측의 설명이다. 지엔티파마는 해당 임상을 통해 크리스데살라진의 발작 억제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HLB생명과학은 반려견 유선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동물 임상 3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유선암은 피부암과 더불어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종이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HLB는 유선암을 비롯해 동물 림프암, 비만 세포암 등 다른 적응증에 대한 연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인포메이션은 반려동물 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 4억4410만 달러에서 오는 2029년 6억4982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종근당건강, ‘스탬벨’ 시니어 앰버서더 모집

스탬벨 제품 사용한 4060 여성 대상
소비자 공감대 형성·후기 공유 기대
인체줄기세포배양액 등 함유 제품

종근당건강의 고효능 인체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스탬벨’이 4060 소비자 공략에 나선다. 종근당건강은 ‘스탬벨’에서 시니어 앰버서더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종근당건강에 따르면 스탬벨 제품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4060 여성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오는 10월 10일까지 홈페이지 및 SNS에 공개한 앰버서더 지원 링크를 통해 지원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종근당건강은 최종 10인을 선정해 1년간 메이크업, 스타일링 등을 제공한다. 또 스탬벨 셀 리제너레이터 제품군을 비롯해 신제품까지 사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등 종근당건강은 앰버서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종근당건강은 이번 스탬벨 시니어 앰버서더 모집이 같은 고민을 가진 가진



고효능 인체줄기세포배양액 화장품 브랜드 ‘스탬벨’ 브랜드 모델 ‘박주미’ /종근당건강

소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생생한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고객 중심 소비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출시된 스탬벨은 출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종근당그룹만의 기술력과 인체 유래 고효능 성분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종근당건강 측의 설명이다.

스탬벨 셀 리제너레이터 제품군의 경우 인체줄기세포배양액, 수용성 콜라

겐, 마이크로바이옴 등을 배합한 독자 성분 ‘트리플 퍼펙터’를 함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종근당건강은 피부 본래의 구성 물질과 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종근당건강은 ‘나노좀테크놀로지’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이 나노좀 흡수 기술은 고농축된 성분을 캡슐에 담은 리포솜 공법으로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종근당건강은 스탬벨 크림, 에센스, 앰플 등 스킨케어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는 자외선 차단제인 ‘스탬벨 셀 유브이 쉴드 리제너레이터’도 추가됐다. 기존 브랜드 대표 제품인 ‘셀 크림 리제너레이터’와 ‘셀 에센스 리제너레이터’의 핵심 성분을 자외선 관리 단계에 접목한 것이다.

종근당건강은 향후에도 건강한 피부를 위한 고효능 제품을 강화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리브영 경주항남점에서 화장품을 체험하고 있다.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 경주에 ‘디자인 특화매장’ 개점

매장 고도화 정책, 전국단위로 확대
한옥 건축 양식으로 지은 ‘경주항남점’

CJ올리브영이 매장 고도화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있다. 올리브영은 지난 6일 경북 경주의 관광 명소 ‘황리단길’에 디자인 특화 매장 ‘올리브영 경주항남점’을 개점했다고 8일 밝혔다.

올리브영 경주항남점은 한옥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황리단길과 인접해 있는 경주 대표 문화유산인 대릉원, 첨성대 등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 건물에 있던 기와 지붕과 서까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장 내·외부를 회색, 흰색 등 무채색으로 꾸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것이 올리브영 측의 설명이다.

영업 면적 기준으로 65평인 단층 규모에 50평 면적의 마당을 함께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올리브영은 관광 목적으로 황리단길을 찾는 고객이 올리브영 매장에서 체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올리브영은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 목적지가 서울을 비롯해 지방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비(非)수도

권 지역에서 올리브영은 총 60여 곳의 매장을 새롭게 열거나 재단장했는데, 이 중에는 지역 랜드마크급으로 분류되는 ‘타운 매장’, ‘디자인 특화 매장’ 등이 다수 포함됐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8월 재개장한 ‘대전 타운’과 ‘청주 타운’ 매장의 경우 개장한 첫 번째 주말에만 하루 평균 5000명에 달하는 고객이 방문하는 등 지역 상권의 새로운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4월 전주 객사길에 문을 연 ‘전주객사점’과 인근 타운 매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고객 모두가 즐겨 찾는 ‘K뷰티 성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그 결과, 올 1월~8월 기준 비(非)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리브영은 전국에서 특화매장을 선보이며 지역 사회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올리브영 경주항남점’ 개점 기념으로는 황리단길 인기 숙소와 연계한 할인 행사를 운영한다. 올리브영은 ‘어느날경주’, ‘오원스테이’, ‘함남고택’ 등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경주항남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청하 기자

더후, ‘고급스러움’ 강조한 광고영상 공개

‘NAD파워 24’ 로얄 뷰티 사이언스 표현

LG생활건강의 궁중 피부과학 럭셔리 코스메틱 ‘더후’가 고급스러움을 갖춘 브랜드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더후’가 글로벌 앰버서더 김지원과 촬영한 광고 영상의 전체 분량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브랜드 대표 제품 ‘비접 자생 에센스’의 핵심 성분인 피부 노화 완화 인자 ‘NAD+’를 소개한다. 특히 김지원의 연기와 내레이션은 LG생활건강이 개발한 고효능 성분 ‘NAD 파워24’를 중심으로 한 ‘로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한다.

또 김지원이 도착한 ‘궁’을 왕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으로 재해석하

고,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베일’과 미래를 밝혀주는 ‘청사초롱’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등 더후 브랜드를 직관적이고 강렬하게 각인시키도록 연출했다는 것이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은 앞서 지난 7월 글로벌 앰버서더로 김지원을 발탁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배우 김지원과 함께 ‘럭셔리 K뷰티’를 이끌어갈 ‘차별적 고객 가치’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